

제20대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백남종 교수 임명

신경재활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풍부한 병원경영 경험과 탁월한 행정역량 겸비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남종 교수(재활의학과)가 임명됐다. 임기는 5월 13일

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3년이다. 백남종 신임 병원장은 199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마쳤으며, 2001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공공의료사업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까지 역임하며 병원경영 전반에 걸쳐 탁월한 행정역량을 쌓아왔다. 학술적으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연구와 신경조절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신경재활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힌다. 현재 한국인 최초로 세계신경재활학회(WFNR)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수행 중이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재활학회(ACCNR) 초대회장과 한국원격의료학회 초

대이사장을 맡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또한, 권역 심뇌재활센터장과 서울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며 진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백남종 신임 병원장은 이러한 행정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혁신을 주도하며 서울대병원을 이끌게 된다. 한편,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임 감사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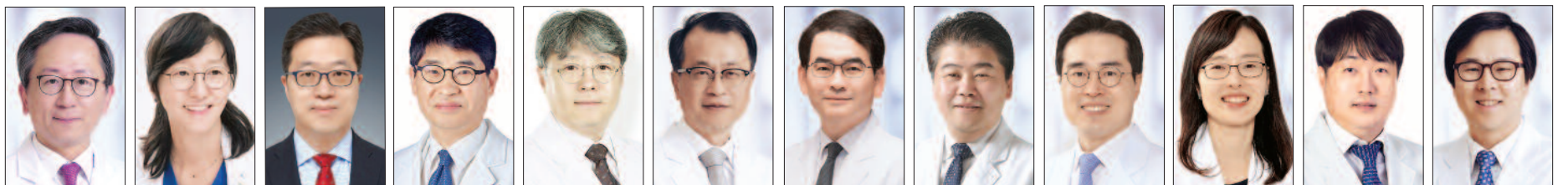


오정훈 감사

5월 11일 서울대병원 신임 감사에 오정훈 감사가 임명됐다. 신임 오정훈 감사는 서울대병원 정보행정팀장과 분당서울대병원 감사 부장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국제휴먼산업협회 자문관을 역임했다.

오정훈 감사는 “서울대병원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는 더욱 신뢰받고 교직원에게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감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발령



김용진 진료부원장, 채중희 소아진료부원장, 권성근 연구부원장,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장, 송경준 보리매병원장, 윤영호 강남센터원장, 박도중 기획조정실장, 이동연 교육인재개발실장, 이순태 의료혁신실장, 이승미 대외협력실장, 이호영 정보화실장, 권우일 국제사업실장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에 순환기내과 김용진 교수, 소아진료부원장에 임상유전체학과 채중희 교수, 연구부원장에 이비인후과 권성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마취통증의학과 전영태 교수, 서울시보리매병원장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원장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앞서, 5월 14일에는 병원관리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에 위장관외과 박도중 교수가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교육인재개발실장에 정형외과 이동연 교수, 의료혁신실장에 신경과 이순태 교수, 대외협력실장에 산부인과 이승미 교수, 정보화실장에 분당서울대병원 핵의학

과 이호영 교수, 국제사업실장에 간담체외과 권우일 교수가 임명됐다. 또한, 의학역사문화원장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가 임명됐으며, 진료지원실장에는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 중앙뇌혈관질환센터장에 신경과 정근화 교수, 헬스케어 AI연구원에 마취통증의학과 이형철 교수, 연구기획

관리실장에 순환기내과 이승표 교수,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 부원장에 순환기내과 최수연 교수,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 헬스케어연구소장에 대장항문외과 박지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어린이날 맞이 대잔치로 환아들에게 웃음 선물

미션 뽑기존·뽀로로 싱어롱쇼·팬사인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해 환아들의 정서적 환기 돕는 따뜻한 하루 마련



▲ 뽀로로와 친구들 팬사인회



▲ 입원한 환아를 위한 김성주 후원인의 선물 전달

‘2026 어린이날 맞이 대잔치’가 4월 30일 열려 입원중인 환아와 외래방문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다. 소아간호과는 치료환경 속에서도 환아들이 ‘어린이로서의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선물전달을 넘어,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뽑기존은 병원 안에서 쉽게 완

수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한 뒤 캡슐토이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돼, 재미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싱어롱쇼와 팬사인회로 함께 노래하고 직접 사인을 받는 경험은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병원을 찾은 아이들에게 선물도 전달돼 어린이날의 기쁨을 더했다. 무엇보다 이처럼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7년부터 어린이병원에 후원을 해 온 김성주 후원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날 어린이날 행사에서 김성주 후원인은 “치료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어린이날이 오래 기억에 남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은 “장기간 치료로 일상 경험이 제한된 아이들에게 이번 행사가 정서적 환기와 심리적 지지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아이들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재 교수,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려산 학술상 수상

방사선치료 후 발생하는 섬유화 예방과 인공식도 개발 등 연구 진행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가 2월 21일 개최된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려산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는 두경부외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우수한 연구논문 발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임상과 기초 부문으로 나뉘어 '려산 학술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두경부분야에서 최근 1년간 출판된 논문의 impact factor 합이 가장 높은 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은재 교수는 2025년 주저자 impact factor 총합 42.7점의 우수한 논문성적을 발표했다. 정은재 교수는 두경부암과 두경부재건, 안면마비 재건수술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명이며, 방사선치료 후 발생하는 섬유화 예방과 인공식도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해 온 전문가이다.

오이철 교수, 미국 안과·시과학회 신진의사과학자 수상

안과 임상현장에 인공지능기술 접목해 새로운 진단 및 예측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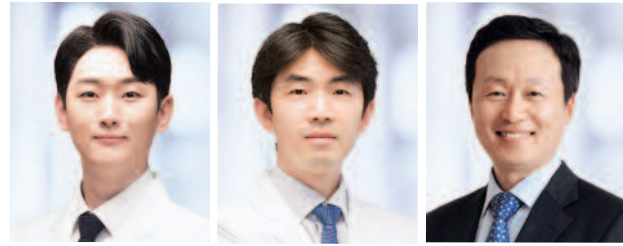


안과 오이철 교수가 5월 3일 미국 안과·시과학회(ARVO,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에서 수여하는 신진의사과학자(Early-Career Clinician-Scientist Research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ARVO는 안과 및 시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단체로, 매년 개최되는 Annual Meeting은 전 세계 안과·시과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학술대회이다. 이 상은 임상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젊

은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ARVO Annual Meeting에서 발표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하여 수여되는 상이다. 오이철 교수는 안과 영상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망막질환 분야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및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안과 임상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진단 및 예측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소속 연구자로는 역대 세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오이철 교수는 "앞으로도 안과 질환의 진단 및 예후 예측, 임상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가능한 인공지능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형외과, 대한슬관절학회 6개 부문 수상

슬관절팀, 구연 대상·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 등 수상



최병선 교수, 노두현 교수, 한혁수 교수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슬관절팀(최병선·노두현·한혁수 교수)이 최근 열린 2026년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구연 대상과 최우수논문상을 포함해 총 6개 부문의 주요 학술상을 수상했다. 같은 기관 소속의 단일팀이 이처럼 여러 부문을 수상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서울대병원의 임상·연구역량과 학술 기여도를 동시에 입증한 성과다.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는 "이번 수상은 일차 치환술부터 재치환, 생체역학,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연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협력연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출발점으로 환자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진단부터 인공관절 재치환까지 슬관절 연구역량 입증"

대한슬관절학회는 슬관절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학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가는 학회다. 매년 두 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대한슬관절학회(KSRR)를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연구팀은 ▲구연 대상(최병선 교수) ▲우수논문상(최병선·한혁수 교수) ▲우수심사위원상(최병선 교수) ▲우수포스터상(최병선 교수) ▲KSRR 최우수논문상(노두현 교수) ▲우수 편집위원상(노두현 교수)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인공관절전치환술(TKA) 장기 환자보고결과(PROMs) 분석, 인공관절 감염 재치환 연구, 비수술적 생체역학 연구, 딥러닝 기반 골관절염 진단 연구 등 슬관절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성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진단·수술계획·수술 중 정렬·수술 후 회복 예측'에 이르는 전 주기를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정밀화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는 "이번 수상은 일차 치환술부터 재치환, 생체역학,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연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협력연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출발점으로 환자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에서 6주간 연수를 마치고 -Daniel Son-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약사가 환자치료에 기여하는 방식 배우며, 글로벌 약학실무의 이해 넓히는 소중한 기회 돼"



저는 UC San Diego Skaggs School of Pharmacy 4학년에 재학 중인 Daniel Son입니다. 국제학생으로서 저는 한국의 대표

적인 상급종합병원이자 교육중심의 의료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 약제부에서 올해 6주간 실습(3월 30일 ~ 5월 8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실습은 병원 약제부의 여러 부서를 순환하며 한국의 병원약학 실무를 직접 관찰하고, 한국과 미국의 약사역할 및 약제업무 흐름을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실습분야는 입원조제 및 임상약료, 외래조제, 소아조제, 주사조제, 암진료조제, 의약품, 약물관리파트, 임상시험센터, 약물안전센터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서에서 약사가 환자치료와 약물안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조제 및 임상약료파트에서는 입원환자를 위한 약물준비와 처방 검토 과정을 관찰하였고, 외래조제파트에서는 외래환자의 처방조제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약사가 약물사용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배웠습니다.

소아조제파트에서는 정확한 용량 계산과 제형 선택의 중요성을, 주사조제파트에서는 무균조제와 환자안전을 위한 검토 과정을 배웠습니다.

또한, 암진료조제파트에서는 항암제 조제, 안전관리, 암치료 지원에서 약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약물관리파트에서는 병원 내 약품의 보관, 공급, 모니터링 및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제 업무에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습은 한국과 미국의 병원 약학실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약사가 단위용량 조제, 주사제 및 항암제 조제, 검수 등 약품 준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약국 테크니션이 약사의 감독하에 조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사는 처방의 임상적 적절성 검토, 약물요법 최적화, 의료

진과의 협업 및 문서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사의 역할은 각 나라의 의료시스템, 인력구조, 업무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외래조제파트에서 관찰한 복용 시간별 약포 포장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이 아침, 점심, 저녁 등 복용시간에 맞춰 한포씩 포장되어 제공되는 과정을 보며, 조제과정이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약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임을 느꼈습니다.

특히,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이러한 시스템은 복용순응도 향상과 약물오류 예방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6주 실습은 글로벌 약학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의료시스템 속에서 약사가 환자치료에 기여하는 방식을 배우며, 약학대학 학생으로서 임상지식, 문화적 이해, 적응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 6주간의 연수기간 중 입원조제파트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Daniel Son

“방사선 줄인 시신경 인접 뇌수막종, 10년 뒤 시력저하 위험 높인다”

백선하·이은정 교수팀, 제한적 방사선 치료가 장기 재발위험 높여



백선하 교수 이은정 교수

시신경 주변에 생긴 양성 수막종을 치료할 때, 시신경 손상이 우려돼 방사선을 적게 쏘면 10년 뒤 오히려 종양이 다시 자라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경외과 백선하·이은정 교수팀은 시신경 인접 양성 수막종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단일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시행하고 10년 이상을 장기 추적관찰 후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시신경 인접 양성 수막종은 시신경 2mm이 내로 바짝 붙어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전상돌기, 안장결절, 시신경집, 해면정맥동 등에서 발생한다. 감마나이프 같은 정위방사선수술이 효과적이지만, 종양이 시신경과 맞닿아 있다 보니 방사선 탓에 시신경이 망가지는 부작용(방사선 유발 시신경병증) 위험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 때

에 의료진은 시력을 보호하고자 종양 일부에 방사선을 쏘지 않거나 선량을 줄이는 보수적인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의 분석결과, 연구대상 환자들의 평균 종양크기는 4.8cm³였으며, 종양에 조사된 평균 방사선량은 12.7Gy였다. 특히, 시신경 보호를 위해 종양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방사선 치료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종양전체를 덮는 방사선 조사범위(커버리지율)는 평균 7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을 장기 추적관찰한 결과, 수술 후 5년 무진행 생존율은 90%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종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10년에는 70%, 15년에는 43%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종양 진행이 발생하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수막종 특성상 성장속도가 느려 치료실패(재발)가 평균 107개월(약 9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지연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약 3분의 1은 수술 후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양이 다시 자라난 위치다. 재발한 종양 대부분은 과거 수술 당시 시신경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방사선을 덜 쏘았던 바로 그 부위에서 발생했다. 우려했던 방사선 부작용(시신경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진 환자는 장기 추적기간 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추적 중 시력이 저하된 환자 2명(9.1%)은 모두 부작용을 피하려고 남겨두었던 종양이 각각 103개월, 116개월 뒤에 다시 자라나 시신경을 압박한 것이 원인이었다. 부작용을 피하려고 방사선을 줄인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종양재발과 시력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셈이다. 이은정 교수(제1저자)는 “이번 연구는 시신경 인접 수막종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성적을 10년 이상 장기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시신경과 맞닿은 대형 종양은 방사선을 여러 번 나누어 쏘는 다분획(저분할) 방사선수술을 통해 시력보존과 종양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교신저자)는 “방사선 유발 시신경병증을 우려하여 방사선량을 줄이는 기존 접근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종양재발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며 “종양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와 충분한 선량을 확보하는 것이 종양조절과 시신경보호 모두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유익균이 자궁내막암 항암 면역높이는 기전 세계 최초 규명

이마리아 교수팀
미생물 기반 면역조절 통한 새로운 자궁내막암 치료전략 제시



이마리아 교수 김세익 교수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마리아·김세익 교수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팀(민경찬 박사, 이민지 박사과정)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궁내막에 존재하는 특정 유익균이 장내 미생물 대사경로와 연결돼 항암면역반응을 활성화하고 자궁내막암 재발 억제에 관여하는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자궁 내에서 자궁내막암 환자의 예후와 연관된 미생물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했으며, 향후 미생물 기반 치료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자궁내막암 및 양성 자궁질환 환자의 자궁내막 조직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숙주 면역반응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오믹스 분석(유전체·전사체·단백질체·대사체 통합 분석)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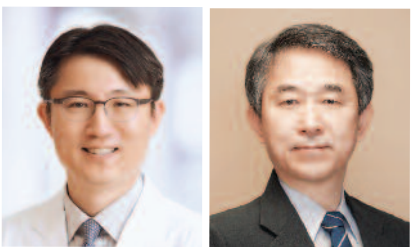
분석결과, 자궁내막암 환자 중에서도 재발위험이 낮고 생존기간이 긴 환자군에서 특정 유익균인 '바실러스 메가테리움(Bacillus megaterium, BM)'이 더 많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미생물 기반 항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궁내막암에서 유익균이 항암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유익균이 항암면역활성과 연관된 대사물질인 "TMAO(트라이메틸아민-N-옥사이드)" 생성과정에 꼭 필요한 핵심유전자 'cutC'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암 환자의 자궁내막 조직과 혈액을 분석한 결과, 해당 유익균의 존재량이 높을수록 혈중 TMAO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이 균이 TMAO 생성경로를 매개로 항암면역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유익균이 음식에 포함된 성분인 '콜린'을 분해해 TMAO로 전환하는 과정이 체내 면역반응 활성화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했다. 즉, 장내 유익균이 콜린을 분해해 생성한 대사물질 TMAO가 체내 면역신호(제1형 인터페론)를 자극하고, 이 신호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 활성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생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Microbiome'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탈모·흉터없는 피부재생 실마리, 태아 피부에서 찾았다”

권오상·김종일 교수팀, 다중 오믹스 분석으로 탈모 극복 핵심표적인 '입모근'의 잠재적 전구 세포 규명



권오상 교수 김종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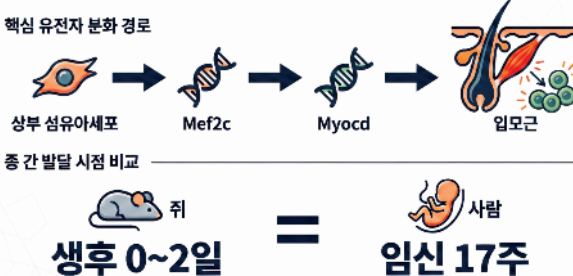
흉터없는 온전한 피부재생과 탈모 극복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국내 연구팀이 태아 피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찾아냈다. 연구팀은 피부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정밀한 '피부발달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팀은 이 지도를 활용해 탈모치료의 핵심표적인 입모근(털세포, APM)의 '잠재적 전구 세포'를 새롭게 확인했다. 나아가, 입모근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임신 17주차 무렵부터 사람 피부의 유연한 재생능력도 상실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 교수팀(이한재 임상강사)과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김종일 교수 공동연구팀은 발달 중인 쥐 피부의 분화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사람 태아 피부 자료와 비교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어른의 피부나 모낭이 재생될 때는 태아 시절의 발달과정이 비슷하게 재현된다. 따라서 온전한 피부재생이라는 난제를 풀려면 태아의 발달과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연구는 단순 유전자 발현 확인에 그쳐,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DNA구조가 개방되는 핵심기전인 '염색질 접근성(Chromatin accessibility)' 연구가 미흡했다.

연구팀은 단일 세포 수준의 전사체·염색질 통합분석인 '다중 오믹스' 분석으로 이 한계를 극복했다. 피부세포 분화가 결정되는 쥐의 태아시기(임신 13.5일차)부터 출생 직후(생후 4일차)까지를 정밀 추적해 피부발달 지도를 구축한 것이다. 가장 큰 성과는 탈모치료의 핵심표적인 입모근의 기원세포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입모근은 모낭에 부착되어 잠든 모발 줄기세포를 깨우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입상에서 탈모환자의 모발 재생여부는 이 근육의 보존상태에 크게 좌우된다. 그동안 명확한 발생기전을 알지 못했으나, 연구팀은 다중 오믹스 분석을 통해 피부 상층부의 특정세포인 '상부 섬유아세포'가 입모근의 잠재적 전구 세포임을 새롭게 규명했다. 특히, 이 세포 내에서 상위 유전자인 Mef2c가 활성화되면 하위 유전자인 Myocd가 연쇄 촉진되며 입모근으로 분화한다는 핵심기전을 입증했다.

또한, 연구팀은 선행연구를 통해 쥐의 상부 섬유아세포가 특정 조직으로 '성숙(분화)'하는 생후 2일차 무렵, 재생능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세포가 입모근 등 자신이 맡을 고유한 역할을 위해 고도로 성숙해지면, 역설적으로 상처를 흉터없이 복구하던 초기 태아시절의 유연한 재생 잠재력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결정적 시기가 사람의 발달단계에서는 언제

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종의 피부발달 지도를 대조 분석했다. 그 결과, 두 종의 피부발달 단계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입모근이 본격 형성되는 것 태어난 쥐(생후 0~2일차)와 임신 17주차 사람 태아의 피부가 세포 성숙도 측면에서 밀접하게 일치했다. 사람 태아 피부에서도 쥐와 동일한 입모근의 기원인 'MEF2C 발현 상부 섬유아세포'군이 발견되는 등 핵심 피부조직이 형성되는 시기와 흐름이 두 종간에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향후 흉터없는 상처 치유와 탈모극복을 위해서는 재생능력을 잃기 전인 '임신 17주 이전'의 초기 태아단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 권오상 교수는 “다중 오믹스 분석으로 탈모치료의 핵심인 입모근의 기원을 규명하고, 쥐와 사람의 피부발달 궤적이 일치함을 입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입모근 분화의 핵심 유전자 경로 및 중간 발달 상응 시점



▲ 상부 섬유아세포의 잠재적 입모근 분화 경로(Mef2c-Myocd)와 두 종 간 발달 상응 시기

여성 숙면, 먹는 양과 쓰는 양 ‘균형’에 달렸다

박민선 교수팀, ‘많이 먹기’보다 ‘쓰는 만큼 챙겨 먹기’가 핵심, 호르몬 민감한 여성 위한 맞춤형 건강·수면전략 제시



박민선 교수 서민정 교수

하루 총 섭취열량과 신체활동으로 소비하는 열량의 균형을 알맞게 유지하는 여성이 극심한 에너지 부족상태에 있는 여성보다 수면부족(하루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을 겪을 위험이 약 29%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정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0·2022년)에 참여한 성인 만 3,164명의 식습관과 신체활동량을 측정해, 에너지 섭취-소비 균형 ‘EIEB’ 및 수면시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수면부족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기존에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이 각각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나,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에너지 균형’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 국가데이터를 통해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24시간 회상법)에서 기초대사량 및 신체활동 에너지 소비량을 뺀 ‘EIEB’ 지표를 산출했다.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먹은 만큼 쓴 것이고, 음(-)이면 부족하게 먹은 것, 양(+)이면 더 많이 먹은 것을 뜻한다. 연구팀은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4개 그룹(1분위~4분위)으로 나누고, 연령, 체질량지수(BMI), 사회경제적 수준, 생활습관(흡연·음주), 식사의 질, 주말 보충수면, 동반질환 등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보정해 짧은 수면위험도를 평가했다.

분석결과, 여성은 에너지가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1분위군에 비해 섭취와 소비가 엇비슷하게 균형을 이룬 2분위군에서 짧은 수면위험이 2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에너지가 남는 3분위군과 과다 섭취한 4분위군 역시 1분위군 대비 위험이 각각 25%, 24% 낮아졌다. 흥미롭게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섭취한 4분위군보다 균형을 이룬 2분위군의 수면 개선효과가 더 컸다. 즉, ‘많이 먹을수록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쓰는 만큼 알맞게 챙겨 먹는’ 균형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남성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위그룹 분석에서도 여성은 연령이나 신체활동 수준과 관계없이 극심한 에너지 부족을 벗어나 균형을 유지할 때 수면부



족 위험이 일관되게 감소했다. 특히, 식사의 질이 낮거나, 활동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주말 보충수면을 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소모하는 만큼 에너지를 든든하게 채워 균형을 맞췄을 때 수면 개선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여성에서만 이 같은 연관성이 나타난 기전으로 ‘신경내분비-면역 조절’의 성별 차이를 지목했다. 우리 몸은 야간 수면 중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약 400kcal를 쓴다. 이때 에너지가 심하게 부족하면 스트레스 축(HPA)이 활성화돼 숙면을 방해한다. 특히, 여성은 코르티솔(스트레스), 렙틴(식욕),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등 대사·면역

호르몬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야간 회복 에너지가 결핍될 때 남성보다 수면 질 저하 악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설명이다.

박민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무작정 덜 먹거나 운동량만 늘리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수면을 해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여성은 자신의 활동량에 맞춰 적절히 챙겨 먹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숙면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수면건강을 지키려면 성별과 직업, 활동 특성에 따라 에너지 균형 목표를 달리 잡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식 환우와 의료진 창경궁 나들이 행사

장기이식센터, 교류와 소통의 시간으로 건강한 만남의 장 마련



장기이식센터는 5월 16일 전체 이식 환우와 이식 의료진이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장기이식 수술 후 30년 이상 된 환우 초청 기념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전체 환우 모임으로, 행사는 창경궁 산책 및 교류, 김종기홀에서의 질의 응답 그리고 점심식사 및 소감나누기 등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맑은 햇살 아래, 신장이식 환우 47명, 간이식 25명, 심장이식 3명, 폐이식 4명 등 100여명의 참가자가 이른 아침부터 창경궁 앞에 모였으며, 민상일 센터장을 비롯하여 이해영·박지명·강은정·홍서영 교수 등 의료진 15명이 함께 했다.

특히, 푸른 하늘 아래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창경궁에서 참가자들은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김종기홀에서는 민상일 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새콩사랑회·설사랑회·폐자부활전·서심회 등 각 이식 환우회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민상일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장기이식은 수술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환우와 의료진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이식센터는 환우분들의 건강한 삶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우들은 진료시간에 미처 묻지 못한 소소하고 다양한 질문을 의료진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심장이식 환우는 “병원 바로 옆이지만 집이 지방이고 외래일정 때문에 창경궁은 처음 방문했다”며 “좋은 경험과 좋은 분들을 만나 뵈어 매우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의 친구 관계’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봉년 교수-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질별 맞춤 접근법 및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침 수록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봉년 교수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증진을 위한 올바른 양육법을 다룬 신간 ‘아이의 친구 관계’를 출간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겪는 따돌림, 갈등, 소외 등의 문제를 단순한 성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번 신간은 아이들이 친구관계에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근본원인을 전두엽 중심의 ‘사회적 뇌’ 발달과정에서 찾는다. 타인의 감정에 동화되는 ‘정서적 공감력’과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력’의 조화가 진정한 사회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축적된 수십만명의 임상·상담 데이터와 최신 뇌과학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이 책의 구성은 ▶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사회성을 만든다 ▶ 사회성 발달에 뇌과학이 필요한 이유 ▶ 내면이 단단하고 따뜻한 아이로 키우려면 ▶ 친구 관계가 아이의 인생을 덮치지 않게 하라 ▶ 은밀한 괴롭힘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기술 ▶ 만약 내 아이가 갈등을 일으켰다면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가정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아이의 뇌 발달과정을 돕는 부모의 역할로 ▶ 감정 읽기 ▶ 공감하고 표현하기 ▶ 의도를 파악하기 ▶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등을 제시하며, 성장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한편, 기질별·성별 맞춤 대처법은 물론, 신경조절(세로토닌 증가, 아드레날린 감소)을 통해 전두엽 발달을 돕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담았다.

무엇보다 현대사회의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뇌 발달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협동 중심의 프로젝트수업 증가와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학 입학전형 감점조치에서 알 수 있듯, ‘건강한 사회성’은 이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 김봉년 교수는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뿌리는 성별과 기질 특성에 맞는 부모의 지지와 사랑”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관계의 성장통을 이겨내고 타인과 소통하고 연대할 줄 아는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여정에 이 책이 훌륭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카시오페이아 발간, 312쪽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전후원회

<외부인사>

- 3억원 김수현
- 3억원 서규중
- 1억 5,000만원 재단법인 양영재단 (누적:6억원)
- 112,808,619원 김거석 (누적:1,268,809,077원)
- 1억원 대성산업주식회사
- 1억원 주식회사 이미스
- 1억원 하상완
- 5,000만원 김영곤
- 2,000만원 (주)유한실버 (누적:6억 7,500만원)
- 2,000만원 성하진
- 2,000만원 장세환
- 1,700만원 김혜진 (누적:1억 2,000만원)
- 1,200만원 이윤진
- 1,000만원 고려엠지 주식회사 (누적:3,000만원)
- 1,000만원 민형순
- 1,000만원 백은
- 500만원 김서지 (누적:6,300만원)
- 500만원 주식회사 아라니아 (누적:2억원)
- 300만원 동문건설(주) (누적:1억 7,500만원)
- 300만원 정유 (누적:7,500만원)
- 200만원 (주)대건상사 (누적:2억 6,800만원)
- 200만원 김기원
- 200만원 김정렬 (누적:1억 1,761만원)
- 100만원 (주)오렌지커스텀 (누적:1,300만원)
- 100만원 오병희 (누적:154,560,040원)

어린이병원후원회

<외부인사>

- 1억원 김거석 (누적:1,268,809,077원)
- 3,000만원 허인영 (누적:2억 600만원)
- 1,000만원 (주)부흥이앤씨
- 1,000만원 (주)오우선테크놀로지 (누적:1억 8,000만원)
- 1,000만원 아이피스외국환중개(주) (누적:7,200만원)
- 9,973,505원 PARK CAROLINE JIHOON (누적:3,000만원)
- 853만원 권대원 (누적:3,720만원)
- 7,777,777원 김기현 (누적:11,111,110원)
- 500만원 (주)싱글룸
- 500만원 김아람
- 500만원 양유찬
- 500만원 이연경 (누적:1,000만원)
- 500만원 조은희 (누적:1억 3,550만원)
- 500만원 한울 주식회사 (누적:1,000만원)
- 400만원 홍만수
- 365만원 김준영
- 300만원 권오완 (누적:2,100만원)
- 300만원 김혜진 (누적:1억 2,000만원)
- 300만원 박슬기 (누적:1,450만원)
- 300만원 주식회사미래와도전 (누적:7,236만원)

- 200만원 김호민
- 200만원 성혜경 (누적:434만원)
- 200만원 임슬기
- 200만원 푸른안과의원 (누적:2,000만원)
- 150만원 (주)우리산업 (누적:2억 1,600만원)
- 138만원 임기봉 (누적:1억 5,732만원)
- 120만원 김수현 (누적:5,520만원)
- 110만원 한국기독교장로회대치교회 (누적:2,800만원)
- 105만원 심유하 (누적:1,130만원)
- 103만원 고혜선 (누적:1,470만원)
- 101만원 은효정 (누적:1,004만원)
- 100만원 (주)보광타이어 (누적:400만원)
- 100만원 (주)티앤에이치(누적:2,700만원)
- 100만원 (주)핫시즈너 (누적:217,221,424원)
- 100만원 강무삼 (누적:3,800만원)
- 100만원 고건혁 (누적:400만원)
- 100만원 고동욱 (누적:1억 2,300만원)
- 100만원 권선희 (누적:1억 2,300만원)
- 100만원 권주병
- 100만원 김영재 (누적:6,050만원)
- 100만원 김윤슬
- 100만원 김은찬
- 100만원 김지영 (누적:3,400만원)
- 100만원 김태근
- 100만원 김혁준
- 100만원 김현준
- 100만원 류영주 (누적:500만원)
- 100만원 문예진 (누적:200만원)
- 100만원 민병무 (누적:700만원)
- 100만원 민예진
- 100만원 박병춘 (누적:200만원)
- 100만원 박소윤 (누적:200만원)
- 100만원 박주영
- 100만원 박태리 (누적:300만원)
- 100만원 배수현 (누적:200만원)
- 100만원 백민정 (누적:200만원)
- 100만원 서울자연이치과 (누적:380만원)
- 100만원 송민기 (누적:1억 4,500만원)
- 100만원 송지희
- 100만원 안수원 (누적:200만원)
- 100만원 오혜진
- 100만원 유다현 (누적:200만원)
- 100만원 이강산
- 100만원 이은진 (누적:200만원)
- 100만원 이장훈
- 100만원 이주형 (누적:200만원)
- 100만원 이호중 (누적:1,200만원)
- 100만원 임익균
- 100만원 임지혜 (누적:2,400만원)
- 100만원 장동혁
- 100만원 정태화 (누적:3,400만원)
- 100만원 조혜음 (누적:1,831,590원)
- 100만원 주식회사 플로우포스 (누적:5,300만원)
- 100만원 최세영

- 100만원 피다 (FITHA)
- 100만원 허하울
- 100만원 황영진
- 100만원 황일정 (누적:1,100만원)

<교직원>

- 1,000만원 강남센터 건강의학부 광민선 교수 (누적:2,0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

<외부인사>

- 1억원 이상구
- 1억원 익명 (누적:33억원)
- 1억원 박두식 (누적:8억원)
- 1억원 익명
- 1,000만원 주식회사 재권 (누적:8억 6,000만원)
- 1,000만원 박명률 (누적:1억 4,000만원)
- 1,000만원 주식회사 대원산업개발
- 1,000만원 경수고속도로(주) (누적:8,000만원)
- 500만원 박진택
- 500만원 홍사민
- 300만원 길혜민
- 300만원 홍종열 (누적:2,200만원)
- 300만원 채태석·정희 (누적:800만원)
- 300만원 임재리 (누적:8,328,000원)
- 100만원 성모월병원 (누적:3,000만원)
- 100만원 티씨엔코리아주식회사 (누적:6,600만원)
- 100만원 구선우

<교직원>

- 500만원 교육수련팀 김진섭 (누적:1,000만원)
- 200만원 영상의학과 이경준 교수 (누적:1,564만원)
- 2,881,000원 원내직원 (월급나눔)

함춘후원회

<외부인사>

- 1,000만원 주식회사 진주 (누적:5,000만원)
- 500만원 한울 주식회사 (누적:1,000만원)
- 100만원 설재춘 (누적:625만원)
- 100만원 (주)윤현상재 (누적:205,795,500원)

<교직원>

- 4,444,410원 원내직원 (월급나눔)

분당서울대병원 스누비안나눔회

<외부인사>

- 5,000만원 중고차 중카TV 수원본점
- 1,000만원 주식회사 재권 (누적:8억 6,000만원)
- 1,000만원 경수고속도로(주) (누적:8,000만원)
- 170만원 최준용 (누적:3,217만원)
- 130만원 (주)신승알앤티 (누적:1억 380만원)
- 110만원 주식회사 샤마 (누적:7,020만원)
- 100만원 박형인 (누적:3,700만원)
- 100만원 홍금임
- 100만원 서남희 100만원 부근시

<교직원>

- 1,754만원 원내직원 (월급나눔)

보라매병원 발전후원회

<외부인사>

- 5,000만원 (사)미래국제재단
- 3,000만원 문채수, 권복임
- 6,158,570원 (주)교보문고 (누적:63,994,589원)

<교직원>

- 4,146,240원 원내직원 (월급나눔)

※2026년 4월 후원자분들 중 지면관계상 100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후원회 '온라인 후원채널' 바로가기



서울대학교병원 후원회 대표 번호

02-2072-1004
02-2072-4122

발전후원회 : 02-2072-4122 / 본관 3층 후원인라운지

어린이병원후원회 : 02-2072-3004 / 본관 3층 후원인라운지

함춘후원회 : 02-2072-0304 / 본관 3층 후원인라운지

분당 발전후원회 : 031-787-7000 / 분당서울대병원 1동 3층 후원인지원실

스누비안나눔회 : 031-787-1142 / 분당서울대병원 1동 3층 후원인지원실

보라매 발전후원회 : 02-870-2174 / 전문건설회관 12층 대외협력팀



중증소아환자 '찾아가는 재택의료' 시작

가정 직접 방문해 재활·영양관리·약물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병부담도 상당하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병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 코디네이터간호사,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꾸렸다. 재택의료팀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단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 영양관리, 약물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가 집에서 환자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시 전화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정부시범사업인 만큼, 경제적 부담도 적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전체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용을 전액 면제받는다.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은 “중증소아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로 통해 그간 병원방문에 어려움을 느꼈던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소아환자의 성장과 발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유일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중증소아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권역 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4월 1일부터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로써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중증소아환자들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서비스의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상시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다만, 의료진의 신속한 방문과 집중관리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편도 30km 이내 경기 남부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는 이동 중 처치가 중단되면 응급상황에 놓일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보호자의 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를 달성하고 4월 16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는 사용적합성 시험실 구축 이후 10년간 쌓아온 역량이 집약된 결과로, 국내 사용적합성평가 분야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는 의료기기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다루며 사용오류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평가절차로 분당

서울대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22년에는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평가품질과 기술력을 검증받아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됐다. 우세준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장은 “앞으로도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선도하고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암 환우회 '숨소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폐암수술 환우모임 '숨소리회'가 4월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진과 환우 2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숨소리회는 국내 최초의 폐암 환우모임으로 폐암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서로의 경험

과 마음을 나누며 심리적 지지와 회복을 돕기 위해 2006년에 창립됐다. 같은 경험을 가진 환우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건네며 회복과 공감의 공동체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기 심장혈관흉부외과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근욱 암센터장의 축사와 김관민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의 회고사가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건강강좌에서는 폐암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으며, 의료진과 환우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2부에서는 창립 20주년 숨소리회 기념책자 '위로(We路)'에 실린 수기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이 밖에도 제주 YMCA가 기증한 '용암층 새벽 숨골 공기' 캔 나눔식도 진행됐다.

행사 2부에서는 창립 20주년 숨소리회 기념책자 '위로(We路)'에 실린 수기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이 밖에도 제주 YMCA가 기증한 '용암층 새벽 숨골 공기' 캔 나눔식도 진행됐다.



제16회 소아청소년당뇨병 가족캠프 개최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은 윤재경재단 후원으로 5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인재원에서 '제16회 소아청소년당뇨병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가족캠프에는 어린이병원 1형당뇨병 환아 및 가족 66명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진 12명 그리고 1형당뇨병 청년자원봉사자 15명이 참여했으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가관리능

력 향상 및 포레 및 가족 간 정서적 지지의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민정 교육간호사의 진행 아래 가족소개 및 상장수여식을 시작으로 소아청소년과 이영아 교수가 '1형당뇨병 관리 최신지견'을 주제로 강의해 디지털기술 적용 및 자동인슐린펌프(AID) 발달, 베타세포 대체치료, 면역치료 및 연구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족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운영한 연령별 정서지원프로그램인 '다함께 마음톡톡'에서는 아이들이 포레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나누었고, 부모·청소년 대상 '궁금해요!!!' 프로그램에서는 1형당뇨병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캠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매우만족'이라고 답했으며, 96%가 '향후 재참여 의향 있음'으로 응답해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경험 공유가 큰 힘이 되었다", "최신 치료경향과 실제 관리경험에 대해 의료진에게 직접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 "아이들이 부담없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으며, 영양사와 바로 소통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이 포레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뜻깊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일부 보호자들은 "막막했던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은 윤재경 재단의 후원으로 2001년 첫 가족캠프를 시작으로 꾸준히 캠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환아와 가족들이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은 이번 캠프와 같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환아와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고 위로받는 자리를 통해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8년 완공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조성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조감도

서울시가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착수한다. 평상시에는 전문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됐다. 필요 시 감염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감염 위험을 최소화했으며, 각 병실에는 압력제어시스템과 배기필터 등 감염관리설비가 설치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라매병원 본원과 센터 간 연결 통로를 설치해 중환자 이송과 본원 수술실 연계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서남권 공공의료인프라가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자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뇌종양 수술 중 '더 빠른 현장 진단' 가능성 확인

변윤환 교수팀, 수술 중 채취한 조직, 현장에서 고해상도 영상으로 확인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변윤환 교수팀이 수술 중 뇌종양을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상기반 진단기술의 임상적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Confocal Laser Endomicroscopy, CLE)을 활용한 진단방식이 기존 표준검사인 동결절편(frozen section, FS)과 비교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지 평가하고, 해당 플랫폼에 적용가능한 인공지능 진단모델의 활용가능성을 함께 분석한 다기관 전향적 임상시험이다. 뇌종양 수술에서는 종양의 종류와 범위를 수술 중에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조직을 채취해 병리과에서 분석하는 동결절편 검사가 널리 사용되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수술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 중 채취한 조직을 현장에서 고해상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LE 기술을 적용했다. CLE는 수술 중 채취한 조직을 빠르게 영상화해, 수술 중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과 캐나다 4개 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376명의 환자에서 461건의

생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CLE의 진단 정확도는 0.94로 동결절편 검사(0.92)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민감도와 특이도 또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진단결과 도출시간은 CLE가 평균 5분 56초로, 동결절편 검사(약 20분)보다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모델은 종양 여부를 판별하는 데 0.94, 종양 아형을 구분하는 데 0.88의 정확도를 보이며, CLE 영상 기반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이 기존검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더 빠른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 또한 AI모델을 결합함으로써 향후 영상기반 수술 중 진단보조기술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변윤환 교수는 "뇌종양수술에서는 수술 중 종양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을 통해 기존 검사보다 빠르게 진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수술 중 바로 확인할 수 있는 CLE 기술개발을 통해, 수술 중 진단과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에 4월 18일 게재됐다.



암병원 해외연자 초청 특강, 제44회 DLS 개최



암병원은 5월 13일 암병원 서성환홀에서 해외 우수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의학정보를 교류하는 '제44회 DLS 특강'을 개최했다. DLS(Distinguished Lecture Series)는 글로벌 학술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암연구 및 치료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강의이다. 이번 특강은 하버드 의과대학 부교수이자 세계적 권위의 암연구 및 치료기관인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의 '다발성 골수종 조기 발견·예방 센터' 소장인 엘리자베스 오도넬(Elizabeth K. O'Donnell) 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오도넬 교수는 '다중암 조기검진

(Multi-Cancer Early Detection, MCED): 도입, 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을 주제로 심도깊은 강연을 펼쳤다. 다중암 조기검진은 한번의 혈액검사 등으로 여러 종류의 암을 동시에 조기발견하는 최첨단 의학분야로, 이번 강연은 해당분야의 최신 연구동향과 향후 임상적용 가능성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암병원 연구분야 담당 배정모 교수는 "이번 특강은 서울대학교암병원의 연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연구 및 치료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인 만큼, 다음 DLS 특강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센터 2026년 하반기 온라인 건강강좌 안내



강남센터가 2026년 하반기 온라인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남센터 건강강좌는 2004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프로그램으로 강남센터와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해왔다. 첫 강좌 시작후 2019년 12월까지 98회에

이르는 강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2020년부터는 COVID-19 유행으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정	강의주제	강사진
6월 11일	새로운 비만치료제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내분비내과 구유정 교수
8월 13일	증상도 없고 조기진단도 어려운 난소암, 무엇이 최선일까?	산부인과 김진주 교수
10월 8일	전자담배는 과연 안전할까?	가정의학과 이철민 교수
12월 10일	무서운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	신경과 편정민 교수



“통증질환”

서울대병원TV - 목/어깨/등·무릎·신경병증성 통증-



서울대병원tv '건강톡톡-통증질환' 편이 제작방송됐다. 서울대병원tv의 이번 영상으로 알아보는 통증질환 코너에는 마취통증의학과 김정수 교수가 출연해 3부에 걸쳐 ▶목·어깨·등 통증 ▶무릎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나눴다. 최근 유튜브 38만 구독자를 달성한 '서울대병원tv' 채널은 현재 건강톡톡과 어린이병원 건강사전을 비롯하여 여행의학, 지켜보다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을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다.

- ▶ 목·어깨·등 통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방법
 - 목·어깨·등 통증,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플까?
 - 의사에게 '내 통증' 100%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 절대 방치하면 안되는 위험한 통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단순 등 통증 vs 척추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 어깨 통증을 부르는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병원에 가면 X-ray부터 무조건 찍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경차단술을 받으면 신경이 끊어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 무릎통증
 - 무릎통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 어르신들의 무릎통증, 무심코 넘기면 안되는 증상은?
 - 한쪽 무릎이 아프면 반대쪽도 아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무릎통증을 정확히 진단하는 검사방법과 치료방법은?
 - 테이핑과 무릎보호대, 정말 효과가 있나요?
 - 평생 쓰는 무릎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팔이 찌릿찌릿 화끈거리는 신경병증성 통증
 -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과정은?
 - 유독 밤에만 심해지고 불면증까지 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 신경병증성 통증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 침해수용성 통증 vs 신경병증성 통증
 - 아플 때는 무조건 쉬는 것이 정답인가요?
 - 다 나왔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원칭찬릴레이 <314>

'직원칭찬릴레이'는 상호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병원친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간의 릴레이 추천으로 매월 6명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암간호과 허수진

-가정간호사업팀 김윤지 직원이 추천합니다-



저는 암병원종양내과외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원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며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동료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저 또한 앞으로도 주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행정교육팀 이지미

-외래간호팀 김영란 직원이 추천합니다-



저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교육전담간호사입니다. 이번 병원보 직원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늘 가까이에서 간호사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간호과 곽희정

-소아조제과 김봉섭 직원이 추천합니다-



저는 암병원 주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곳 외래에서 진행되는 모든 항암주사와 암병원 진료 주사처방에 대해 예약 및 접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암병원 주사치료실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과간호과 이근지

-응급간호팀 김태정 직원이 추천합니다-



저는 35병동 산부인과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 직원칭찬릴레이의 직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부인과 수술 및 항암치료 환자분들이 치료과정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따뜻하고 믿음가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서현우

-영상의학과 신현 직원이 추천합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번 칭찬과 격려는 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의 존중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하며, 저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환자분들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비과 이소중

-조직은행 박혜운 직원이 추천합니다-



저는 설비과 서비스빌딩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원과 암병원, 의생명연구원에 냉방 및 냉동기를 비롯하여 난방과 보일러 등 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당연한 역할에 대해 이렇게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설비정비를 철저히 해 더욱 안정적인 냉방 및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